

# 경기도, 비무장지대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 비무장지대와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의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추진하는 이 제도는 물과 땅, 공기 등 자연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기부하는 제도로,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정 계좌에 시민이나 기업,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하거나 'DMZ 에코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익금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현지 주민과 토지 소유자, 지역 비정부단체 등에게 지원됩니다.

14.4 X 6.7 cm

# [경기] DMZ·민통선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의 비무장지대와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물과 땅, 공기, 휴양 등 자연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기부하는 제도로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정 계좌에 시민과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하거나 에코 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부금과 증권 판매금은 현지 주민과 토지소유자, 지역 NGO 등에게 직접 사용됩니다.

14.4 X 5.2 cm

# 道, DMZ '생태계 지불제' 도입

## 기부·에코증권 구입 방식 운영 평화마라톤 등 행사 기부 확대

경기도는 파주·연천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DMZ 전체 구간을 우선 환경보호 구역으로 만들어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운동인 이른바 '에코-DMZ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환경부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추진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물, 땅, 공기, 관광, 휴양 등 자연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물이용부담금처럼 강제로 세금을 걷어

상류 주민에게 마을회관 건립 등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정 계좌에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하거나 'DMZ 에코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금과 증권 판매금은 현지 주민과 토지소유자, 지역 NGO 등에게 직접 사용된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DMZ 에코증권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액면가는 5천원과 1만원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19~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논의한다.

콘퍼런스 참석자 방한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의 환경 전문가들은 개막 하루 전인

18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도입될 파주·연천지역 DMZ와 민통선 일대를 둘러봤다.

이들은 'DMZ 글로벌 트러스트(땅 1평 사기) 운동'을 위해 임진강 군남댐, 장단반도, 태풍전망대, 두루미서식지 등을 답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자연환경국민신탁, 파주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등과 'DMZ 일원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DMZ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참가자가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해 적립한 461만원을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평화통일마라톤, 자전거 페어리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기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경환기자 jing@

17.8 X 10.5 cm

# “DMZ 환경 누린만큼 기부하세요”

## 도-자연환경국민신탁,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경기도는 파주·연천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DMZ 전체 구간을 우선 환경보호 구역으로 만들어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운동인 이른바 '에코-DMZ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환경부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추진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물, 땅, 공기,

관광, 휴양 등 자연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물이용부담금처럼 강제로 세금을 걷어 상류 주민에게 마을회관 건립 등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정 계좌에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하거나 'DMZ 에코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금과 증권 판매금은 현지 주민

과 토지소유자, 지역 NGO 등에게 직접 사용된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DMZ 에코증권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액면가는 5천원과 1만원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19~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논의한다.

콘퍼런스 참석자 방한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의 환경 전문가들은 개막

하루 전인 18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도입될 파주·연천지역 DMZ와 민통선 일대를 둘러봤다.

이들은 'DMZ 글로벌 트러스트(땅 1평 사기) 운동'을 위해 임진강 군남담, 장단반도, 태풍전망대, 두루미서식지 등을 답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자연환경국민신탁, 파주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등과 'DMZ 일원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DMZ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참가자가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해 적립한 461만원을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평화통일마라톤, 자전거 퍼레이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기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mailto:jesuslee@incheonilbo.com)  
23.4 X 9.9 cm

# DMZ 생태계 보전 온세계가 뚝뚝 뭉쳤다

## 각국 기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오늘 생태계 서비스 컨퍼런스

경기도 DMZ 글로벌 트러스트 팸투어(이하 팸투어)가 18일 파주·연천지역 DMZ 일원에서 진행됐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협력한 이번 팸투어는 19일 열리는 '생태계 서비스 국제 컨퍼런스'와 'DMZ 에코증권' 발매를 기념하고, DMZ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생태환경서비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연천지역의 임진강 군남담 및 장단반도, 태풍전망대, 오두산전망대 등을 답사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 요소의 간접 사용가치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물이용부담금 또는 생태보전협력금을 구매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도와



19일 열리는 '생태계 서비스 국제 컨퍼런스'와 'DMZ 에코증권' 발매를 기념하고, DMZ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정착을 위해 경기도 DMZ 글로벌 트러스트 팸투어(이하 팸투어)가 18일 파주·연천지역 DMZ 일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제공=경기도북부청]

자연환경신탁, 연천군, 파주시는 지난 3월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세계 각국 생태서비스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DMZ 일원의 한국적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정착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

립·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DMZ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지난 2년간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통해 모금한 461만원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DMZ 토지공유화 적립금으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평화통일마라톤, 자전거 퍼레이드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기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자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DMZ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DMZ 글로벌 트러스트'는 DMZ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세계적 자연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DMZ 일원을 대상으로 토지기부물 받거나 기금 기부자들이 땅 1평씩을 저축하는 운동을 말한다.

생태계 서비스 국제 컨퍼런스는 19~22일 자연환경국민신탁 주최로 호암회관에서 개최되며, 생태계 서비스 기반 정책 도입 및 이행방안 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DMZ 에코증권은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상표권 등록을 마친 환경증권으로, DMZ 일원의 생태계 서비스 향유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의 의사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 판매 금액은 DMZ의 생태계 보전, 야생 서식지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최종복 기자 [bok7000@](mailto:bok7000@)  
22.7 X 14.0 cm

## 'DMZ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정착' 팸투어 열기

DMZ 글로벌 트러스트 팸투어가 18일 파주·연천지역 DMZ 일원에서 진행됐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주최하고 경기도가 협력한 이번 팸투어는, 19일 열리는 '생태계 서비스 국제 콘퍼런스'와 'DMZ 에코 증권' 발매를 기념하고 DMZ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정착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생태환경서비스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주·연천 지역의 임진강 군남댐 및 장단반도, 태풍 전망대, 오두산전망대 등을 답사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 요소의 간접 사용가치의 이



/자연환경국민신탁 제공

용에 대한 대가로서 물이용부담금 또는 생태보전협력금을 구매하게 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 도와 자연

환경신탁, 연천군, 파주시는 지난 3월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세계 각국 생태서비스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해 DMZ 일원의 한국적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정착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

20.2 X 6.2 cm

# "DMZ 환경 혜택 누린만큼 기부해 남북평화에 기여해요"

"DMZ 환경 혜택 누린만큼 기부해 남북평화에 기여해요"경기도-자연환경국민신탁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는 파주·연천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DMZ 전체 구간을 우선 환경보호 구역으로 만들어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운동인 이른바 '에코-DMZ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환경부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추진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물, 땅, 공기, 관광, 휴양 등 자연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한 대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물이용부담금처럼 강제로 세금을 걷어 상류 주민에게 마을회관 건립 등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의 특정 계획에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기부하거나 'DMZ 에코증권'을 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부금과 증권 판매금은 현지 주민과 토지소유자, 지역 NGO 등에게 직접 사용된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DMZ 에코증권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며 액면가는 5천원과 1만원이다.

자연환경국민신탁은 19~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논의한다.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의 환경 전문가들은 개막 하루 전인 18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도입될 파주·연천지역 DMZ와 민통선 일대를 둘러봤다.

이들은 'DMZ 글로벌 트러스트(땅 1평 사기) 운동'을 위해 임진강 군남댐, 장단반도, 태풍 전망대, 두루미서식지 등을 답사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자연환경국민신탁, 파주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 등과 'DMZ 일원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DMZ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참가자가 10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기부해 적립한 461만원을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지원하기도 했다.

도는 평화통일마라톤, 자전거 퍼레이드 등 각종 행사를 통한 기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지난 8일 파주 시민회관에서 '에코-DMZ 이니셔티브' 발의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DMZ세계평화공원이라는 정부 구상이 있지만 단기간에 DMZ가 평화지대로 변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합의로 DMZ 전역을 에코 벨트로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실천 실천방안으로 DMZ와 민통선지역, 접경지역의 생태계 효용에 대해 보상하고 국가 농업유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농업유산을 만들어 생태관광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등이 제안됐다.

kyoon@yna.co.kr  
(끝)

# 광복 70주년 '통합과 통일' 풍성한 기념행사

경기도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합과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통합과 통일'을 주제로 태극기 사랑운동, 7대 기념행사, 특별행사, 해외 강제이주 동포 초청 행사 등 다채로운 광복 70주년 행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통합과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정의 연장선에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결속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통합'을, 세계 유일 분단국가 중심에 위치한 경기도로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라는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자는 취지로 주제를 '광복 70주년, 미래를 여는 빛'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먼저 광복 70주년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8월 15일 광복절 이전까지 '5대 태극기 사랑행사를 진행한다.

'5대 태극기 사랑행사' 통해 해방·독립의 참의미 되새겨

학술대회·평화 누리길 걷기 해외 강제이주 동포들 초청 항일유적지 탐험 등 7대 행사 남녀노소 하나되는 프로그램

태극기 사랑행사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게양하기 ▲태극기 나무 만들기 ▲릴레이 태극기 달기 ▲태극기 활용 디자인 개발·확산 ▲차량용 태극기 보급 등 5가지로 추진된다.

도민과 대형 태극기 만들기 행사는 지난달 도청 벚꽃 개방행사에서 1차 진행됐으며 오는 8월 임진각 평화 누리와 경

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형태극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8월 1일부터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까지는 도내 31개 시·군이 관공서를 비롯해 시·군을 잇는 대로변 구간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릴레이 태극기 달기'가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도는 학술대회, 평화 누리길 걷기·자전거 대행진, 항일유적지 탐험, 나라 사랑 백일장, 특별전시회, 기념음악회·영화제, 광복절기념식 등 7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복 70주년 학술대회는 다음 달 중국 장춘에서 한중 세미나, 7월 국내 세미나 등이 예정돼 있으며 6~7월께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탐방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누리길에서는 오는 10월까지 걷기대회와 자전거 대행진이 진행되며 7월과 8월에 각각 1회씩 청소년들을 위한 항일유적지 탐방 행사도 마련된다. 7월에는

'어느 가족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주제로 광복 특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복절을 기념한 음악회와 영화제도 준비돼 있다. 8월 15~16일 임진각에서 클래식 공연과 K팝 공연이 펼쳐지는 광복 70주년 기념 콘서트도 개최되며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와 동북아 다큐 특별전이 마련된 DMZ다큐영화제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파주와 고양 일대에서 개최된다.

광복절 당일 기념식은 8월 15일 오전 10시 경기중기센터에서 애국지사, 광복회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을 모시고 진행된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도민이 태극기로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에게 광복에 대한 역사인식을 일깨우며 해외동포의 잃어버린 삶을 찾아 치유해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23.0 X 12.7 cm

## 경기도 광복 70주년 행사 풍성

대형태극기 제작·게양 등 '통합과 통일' 주제로 진행

경기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통합과 통일'을 주제로 태극기 사랑운동, 7대 기념행사, 특별행사, 해외 강제이주 동포 초청 행사 등을 추진한다.

우선 태극기 사랑운동은 ▶대형 태극기 만들기·게양하기 ▶태극기 나무 만들기 ▶릴레이 태극기 달기 ▶태극기 활용 디자인 개발·확산 ▶차량용 태극기 보급 등 5가지로 추진된다.

7대 기념행사는 ▶학술대회 ▶평화누리길 걷기·자전거 대행진 ▶항

일유적지 탐험 ▶나라사랑 백일장 ▶특별전시회 ▶기념음악회·영화제 ▶광복절기념식 등으로 이뤄진다.

이들 기념행사는 도에서 추진 중인 통일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특히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7월 말 일제강점기에 해외로 이주한 경기도 출신 동포 10여 명을 초청해 특별행사를 개최,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광복에 대한 역사인식을 일깨우고, 해외동포의 잃어버린 삶을 찾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흠 기자 hero43k@kihoilbo.co.kr  
10.1 X 10.9 cm

# 3차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오늘부터 선착순 참가자 모집



[경기방송 = 문영호 기자] 생태계 보고인 DMZ에서 제 3차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고양시(시장 최성),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일원을 걷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다음달 13일(토)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및 일반인, 동호회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를 출발해 민통선 구간인 신평소초를 지나 한강변철책구간을 거쳐 행주산성에 이르는 11km의 편도형 코스입니다.

이번 걷기대회는 '화합과 나눔의 길'을 주제로 해 고양시 나눔의료단과 함께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해외아동을 초청해 무료시술을 해주는 <1000명의 걸음, 1명의 생명>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와함께 평화누리길 페이스페인팅, 평화누리길 사진전시회, DMZ 생태해설교육, 평화기원 리본달기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학생참가자는 사전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참가자의 걸음 수에 따라 적립된 일정금액은 비무장지대(DMZ) 보전사업에 사용합니다.

참가신청은 오늘(18일)부터 공식홈페이지([www.walkyourdmz.com](http://www.walkyourdmz.com))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1,000명을 선발합니다.

참가비는 만원으로 완주할 경우, 완주증명서와 함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65-8310으로 하면 됩니다.  
문영호 [sonanom@kfm.co.kr](mailto:sonanom@kfm.co.kr) 수도권에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